GS 칼텍스

뉴스홈 | 최신기사

## 야구 선수협 "현 FA 제도 `일본 엑서더스' 초래"

송고시간 | 2008-11-04 16:34











이충원 기자 기자페이지

야구 선수협 "현 FA 제도 `일본 엑서더스' 초래"

(서울=연합뉴스) 이충원 기자 =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(회장 손민한)가 현행 자유계약선수(FA) 제도의 전면 개정을 요 구하고 나섰다.

권시형 선수협회 사무총장은 4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"현 FA 제도는 너무 가혹해서 선수들 입장에선 `FA 신청을 하지 말고 차라리 일본으로 가라'라는 소리나 마찬가지"라며 "한국 프로야구의 공멸을 막고 선수들의 최소한 권리를 찾 기 위해서라도 조만간 FA 제도에 대한 자체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"이라고 밝혔다.



선수협회가 FA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올해부터 벌칙 제도가 신설되는 등 한층 엄격해진 FA 제도가 시행된다는 점 과 관련이 있다.

프로야구 선수는 고교나 대학을 졸업하면 국내 구단의 지명을 받 아야 하고 9년을 뛰어야 팀을 옮길 수 있는 FA 자격을 얻는다. 하 지만 구단간 선수 스카우트 경쟁 와중에 FA 관련 규정이 지나치 게 엄격해졌다는 게 문제다.

야구규약에 따르면 팀을 옮긴 FA 선수에겐 전년도 연봉에서 50% 이상 인상한 금액을 줄 수 없고, 계약금도 줄 수 없고, 다년 계약도 금지돼있다.

반면 FA 선수를 데려간 구단은 전 소속 구단에 연봉의 450%를 보상해야 한다.

이 제도는 지금까진 적용이 안 돼 유명무실했지만 각 구단은 올해 초 'FA 거품'을 없애겠다며 관련 규정을 어긴 선수와 직원에겐 2년간 자격정지, 구단엔 5천만원 제재금 등 벌칙을 부과한다는 조항까지 신설했다.

한국야구위원회(KBO)가 5일 FA 자격 선수를 공시하면 구단-선수간 줄다리기가 시작되지만 FA 자격이 있는 선수들은 "이럴 거면 FA를 신청한다고 해도 데려갈 구단이 있겠느냐"라며 "차라리 일본에 가는 편이 낫겠다"라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다.

국내 팀이 아닌 해외구단으로 갈 때에는 각종 제한이 없어지기 때문이다. 프로야구 선수들의 일본행 경쟁이 예상되는 대목이다.

권 사무총장은 "이렇게 가혹한 제도라면 차라리 FA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게 낫다"며 "선수들 직업선택의 자유를 심각하 게 침해하는 반인권적 FA 제도를 개정해야 한다"라고 말했다.

chungwon@yna.co.kr

##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

<저작권자(c) 연합뉴스, 무단 전재-재배포 금지> 2008/11/04 16:34 송고





















## 핫뉴스 →

박진, 광우병 사태 때 美당국자에 "한국에 너 무 많은 민주주의"

한국 유튜버, 촬영 중 실수로 우크라 국경 넘었 다귀화

프로야구 LG-SSG전 오심 내린 심판, 2군 강 등징계

"마지막 순간 마음 바꿨다" 2015년 파리 테러 범이 밝힌 '그날...

'음주측정 거부·경찰관 폭행' 래퍼 장용준 1심 실...

'가짜 여성계정 운영 의혹' 소개팅앱 내부고발...권익...

박찬욱, 칸 초청에 "기쁜 봄소식...오래 기립박수 칠...

반려견도 육식보다는 채식이 더 건강하고 덜 위험해



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		
- · - · <del>-</del>		



현장 영상 →

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

▶ 01:18 ▶ 02:22

[영상] 압발 묶인채 두 눈만 멀뚱멀뚱...누가 학대했니 [영상] 곡사포 수송헬기 장갑차...美, 꺼렸던 무기들 [영상] 미국 최고위급 키이우 방뜴 결국 우크라에

링컨 등 후보군"

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영상

에디터스 픽 Editor's Picks

영상

▶ 01:59

[영상] 윤석열, 안철수 '패싱' 질문에 "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"

● 뉴스



모임-영업-행사 제한 등 거리두기 완전 해제...마스크는 '유지'

검수완박에 청문정국 '한동훈 블랙홀까지...여야 끝장대치 예고

1년5개월 만에 전국 평검사회의...'검수완박 대응' 논의

기준금리 1.25→1.50% 또 인상...4%대 인플레 '불 끄기'

## 댓글 많은 뉴스

집건희여사팬카페, 악성댓글 누리꾼들 경 ② 122 출에고발

**2** 정호영 자녀, 경북의대 편입전 아버지 있던 경북 ഈ 58 대병원 자원봉사

**3** '유퀴즈' 尹당선인 출연 논란..."프로그램 취지와 ⊕ 47 안 맞아"(종합)

4 두문불출 이재명, 이발·염색...조기등판론 속 활 ☑ 37 동재개 예열?

**5** 문대통령, 손석희와 대담...靑 "임기 5년 소회 밝 ⊕ 31 일 예정"

뭐하고 놀까? ## 😛 →

유튜브채널 연압뉴스











sns **f** 





English 中文 日本語 عربي Español Français

외국어

계약사/제휴문의

연합뉴스TV 인포맥스 한민족센터 K컬처기획단(K-ODYSSEY) 채용 IR클럽 #홍

회사소개 윤리헌장 저작권규약 수용자권익위원회 모바일모니터링위원회 콘텐츠자문위원회 고충처리

관련사이트

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독자게시판 기사제보(02-398-3000) 사이트맵

연합뉴스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길 25 | 등록번호 문화,나00009 | 등록일자 1980.12.29 | 발행일자 1980.12.29 | Tel. 02-398-3114

(C) [대표이시] 성기홍 [편집인] 조채희 Yonhannews